

이러니 광주·전남 미분양 속출…1순위 청약 전국 최하위

상반기 1순위 청약통장 3개 중 1개 서울…60% 수도권 편중

청약자 수 광주·전남 99명 불과…경쟁률 0.31대·0.05대1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시장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청약자 수와 경쟁률이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과 신규 아파트 미분양 속출이 '수요 없는 공급'에 따른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1순위 청약자 25만 7672명

가운데 광주는 89명, 전남은 10명으로 청약자 수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서울은 8만 3709명이 몰리며 전체 청약자의 32.5%를 차지했고,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중은 60.1%에 달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북(3만 2582명), 충남(2만 6631명), 전북(2만 2190명) 등 3개 지역이 1만명을 넘어섰다.

상반기에는 탄핵·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공급 물량이 저조하면서 분양 시장 전반에 냉기가 돌긴 했지만,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1순위 청약자 수가 거의 없다 보니,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역시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 중 가장 낮았다. 광주의 청약 경쟁률은 0.31대 1, 전남은 0.05대 1이었다.

광주·전남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8.56대 1)에도 못 미쳤으며 비슷한 도시인 대전(1.56대 1), 울산(7.11대 1)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서울 평균 경쟁률은 72.92대 1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서울 분양 단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1순위 14가구 모집에 6020명이 몰려 평균 4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에 4만여 명이 신청해 평균 151.6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1대 1의 문턱조차 넘기지 못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광주·전남지역의 청약자 부진은 상반기 동안 지속됐던 아파트 가격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이상 하락세 또는

보합 국면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5월 기준 419호로 전월(349호) 대비 20.1% 증가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울 청약 시장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은 수요 부진과 공급 축소가 겹치며 침체 흐름이 두드러졌다"며 "6·27 대졸 규제로 수도권 중심의 청약 열기가 다소 식을 수는 있겠지만, 양극화 구조는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새 정부 기대감…6월 광주·전남 부동산소비심리 기준치 넘어

광주 103.2·전남 102.6 기록

주택사업 경기 전망은 엇갈려

6월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3.2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기준선(100)을 다시 넘어섰다. 전남 역시 102.6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그 효과가 심리지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7.4p 상승했다. 수도권(119.4)은 전월 대비 10.9p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고, 비수도권(103.9)도 3.6p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광주는 전월(99.4) 대비 3.8p, 전남은 전월(98.6)보다 4.0p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0에서 200 사이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

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심리지수 역시 광주 104.8, 전남 105.4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주택매매심리지수도 광주 107.3, 전남 106.6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광주 102.4, 전남 104.1로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연구원은 "조자 시점이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만큼 이후 시장 반응은 향후 조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광주 주택사업자들의 7월 경기 전망 역시 88.8로 전월(80.0) 대비 크게 올랐다. 하지만 전남은 71.4로 전월(88.8)보다 17.4%p 급락해 지역 간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경기 전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세가 나타났다. 경기 29.4p(92.8→122.2), 서울 28.9p(106.2→135.1), 인천 17.9p(95.8→113.7) 순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분당·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조치가 '막차 수요'까지 자극하면서 매수세가 강화됐다고 봤다. 비수도권은 94.9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산연은 5월 지방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데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호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점이 긍정적인 전망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지만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에 걸쳐 이뤄진 조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

국토정보공사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



강현영(왼쪽부터) 부산시 도시정비과장, 남광우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 이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실장, 최훈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이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국토부, 건설현장 167곳 불법행위 520건 적발

상반기…불법 하도급 38% 1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해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률은 10.4%로, 지난해 상반기 단속률(14.9%)보다 4.5%p 하락한 수치다.

적발 내용별로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이 뒤를 이었다.

페이퍼컴퍼니, 대금 미지급,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 기술인 미배치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 적발 업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

반기에는 업체 238곳에 대해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제주·경상권)에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설치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 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 본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협력사 20개사 ESG 지원

LH-동반성장위 업무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에게는 금융 지원, 해외 판로 지원, 환경 R&D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LH는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부동산 산업 관련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SG 교육부터 역량 진단 지원, 현장 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1억원(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반성장위

원회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